

이재명 대통령...국민은 '내란종식' 택했다



“감사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일 밤 인천 계양구 자택을 나서며 주민과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선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8.75%의 득표율(4일 오전 12시30분 기준)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불과 0.73%p 차이로 석패했던 이재명 후보는 2번째 대선 출마 끝에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됐다.

▶관련기사 2·3·4·5면

특히 유권자들이 12·3 불법 비상계엄 6개월 만에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내란 종식'을 기치로 내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면서 민주당은 3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개표 집계 결과, 이재명 후보는 4일 오전 12시30분 기준 개표율 61.19% 상황에서 48.75%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2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은 42.81%,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은 7.39%다.

61% 개표·48% 득표율 당선 확실

민주당 3년 만에 정권 교체 성공

李 “국민 위대한 결정 경의 표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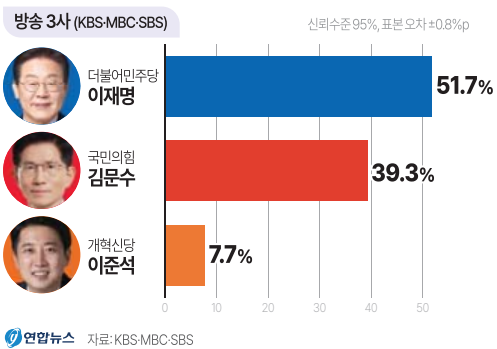
총리 김민석·비서실장 강훈식 유력

광주·전남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8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줬다.

광주(개표율 63.14%)의 경우 이재명 후보 84.83%, 김문수 후보 8.53%, 이준석 후보 5.6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전남(개표율 66.12%)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 85.89%, 김문수 후보 9.24%, 이준석 후보 3.94%다.

이재명 후보는 부산시·대구시·울산시·강원도·경북도·경남도 등 영남·강원권 6개 시·도를 제외한 11개 시·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2025대선 출구조사 결과



특히 이재명 후보는 유권자가 가장 많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모두 김문수 후보에 앞서면서 승기를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통적으로 진보·중도 성향이 강한 서부 라인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보수 성향이 뚜렷한 동부 라인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앞선 것으로 보인다.

방송사 개표 방송에서 “당선 확실”이 예상된 직후 이재명 후보는 “만약 이대로 결과가 확정 이 된다면 국민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

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정 직전 인천 계양구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이라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선부르다”면서도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향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에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정책실장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낙점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후보가 전날 측근들과 논의를 거쳐 마무리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은 4일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

앞서 3일 오후 8시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방송사 출구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10%p 이상의 격차로 낙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 51.7%, 김문수 후보 39.3%였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는 12.4%p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7.7%를 기록했다.

JTBC 자체 출구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 50.6%, 김문수 후보 39.4%, 이준석 후보 7.9%로 나타났다. 채널A는 이재명 후보 51.1%, 김문수 후보 38.9%, 이준석 후보 8.7%였으며, MBN은 이재명 후보 49.2%, 김문수 후보 41.7%, 이준석 후보 7.8%였다.

방송 3사 출구조사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8만14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8%p다. 응답률은 80~85%다.

JTBC 출구조사는 5월30일부터 6월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2천명을 대상으로 무상 가상번호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0.9%p다. 채널A는 같은 기간 만 18세 이상 남녀 1만1천22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방식(응답률 24.2%)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에 ±0.93%p다.

/김진수·김재정·변은진 기자

기업은 성장의 기회 | 지방은 새로운 도약

기회발전특구가 함께합니다.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인센티브

세제지원	소득세·법인세	• 수도권 기업이 사업용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 지연 •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법인세 감면(5년 100% + 2년 50% 감면)
	취득세·재산세	• 특구 이전시(최대 100%) · 창업시(최대 100%) · 공장 산·중설시(최대 75%) 취득·재산세 감면
	상속세	• 이전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업종변경 제한,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 • 창업·이전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중견기업 전체) 및 공제한도 폐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국회통과시 적용
재정금융지원	이자·배당소득세	• 민간이 펀드에 일정기간(10년) 이상 투자시 이자 · 배당소득 세제혜택(분리과세 9%)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확대(지원비율 최대10% 가산)
규제특례	개발부담금	• 개발부담금 100% 면제
	규제특례	• 지방정부가 규제특례 직접 설계하여 신청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후 해당규제 특례 부여
정주여건개선	주택 양도세	• 특구에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주택 특별공급	• 특구 내 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
	교육지원	•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대상 선정시 가산점 부여

※ 개발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주택특별공급 등의 경우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 국회 통과시 적용

